
장난이었어요

심 혜 인

여럿이 함께 모여 왕따하며 괴롭히고
경찰서에 가선 모두 함께
“장난이었어요.”

폭력과 협박으로 잡일을 시키고
학·폭·위에선 잘못 아니라는 듯이
“장난이었어요.”

SNS에서 욕설과 협박이 가득한 문자 보내고
경찰서에 가선 나가려고 하며
“장난이었어요.”

장난?
과연 장난이었을까?
장난인지 결정하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해자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몇몇 피해자들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슬픈 선택이야말로
가해자들의 행동이 장난이 아닌
폭력이었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닐까?

가해자들이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견딜 수 없는
폭력과 고통을 어린이에게, 친구에게 주었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닐까?

아니다!

가해자들은 절대 피해자들의 친구가
될 수 없다!